

신안군 하의권에 쾌속선 '퍼스트엔젤호' 취항

하의·신의·장산면 섬지역 지난 17일부터 운항 돌입 200명 승선 할 수 있는 170톤 규모...최대속력 26노트

신안군은 하의·신의·장산면 섬지역에 쾌속선 퍼스트엔젤호가 이달 17일부터 첫 운항에 들어갔다.

신안군은 "하의권 주민들의 해상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쾌속선 취항식을 18일 하의면 응곡선착장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도·군의원, 여객선사 및 유관기관 단체장,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신진해운 주최로 성대하게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양운수(주)의 엔젤호가 운항중단(22.6.30.)된 이후 대체 운항할 면허신청자의 부재로 부득이 신안군에서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해

상여객운송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하여 (유)신진해운을 사업자로 확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취항하게 될 (유)신진해운 소속의 쾌속선 퍼스트엔젤호는 200명이 승선할 수 있는 170톤 규모로 최대속력은 26노트이며, 목포에서 장산 북강을 경유해 하의 응곡과 신의 상태서리까지 70여분이 소요되며, 이후 도초 우이도선착장의 접안시설이 완료되면 도초 우이도까지 기항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불편을 겪었을 섬주민들에게 안정적인 해상교통 체계와 언제든 육지와 교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섬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힘을 기울여 더 이상 떠나지 않고 누구나 살고 싶은 신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함평군, 함평공원 내 전라남도 5.18 사적지 철거

함평군은 전라남도 5.18 사적지 철거 고시에 따라 지난 16일 함평공원 내 기념비석을 철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함평공원 5.18 사적지 기념비석은 전라남도에서 유일한 예산으로 세워졌으며, 화강암 재질에 동판이 부착된 비석의 형태로 전남도 내 사적지 마다 모두 동일하다.

그 동안 함평공원 내 5.18 사적지 기념비석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과는 거리가 먼 장소에 세워져 있어서 지역 내 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군은 전라남도 5.18 사적지 위원회의 전면 재심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고시됨에 따라 철거작업을 실시했으며, 철거된 동판은 폐기 처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관내에 설치된 모든 보존 시설물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 지역문화와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기자



영광군, 설 명절 앞두고 공직자 '청렴한 명절 보내기' 캠페인 실시

영광군은 지난 18일 군청 본관 앞에서 설 명절을 맞아 '청렴한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펼치며,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강종만 군수는 공무원노동조합원과 실과소장 등이 참여한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직접 리플릿과 초코파이를 나눠줬다.

리플릿에는 2023년을 청렴하게 시작하는 의미와 설 연휴 음주운전과 금품·향응 수수, 근무 태만을 주의하자는 '설 명절 청렴주의보' 내용을 담았으며, 초코파이에는 선물이 아닌 마음만 주고받자는 '정(情)'의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광군수는 "전남도에서 실시한 2022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만큼 더욱더 청렴한 영광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고·의례 목적으로 5만 원까지 가능하며 2022년 법 개정으로 농수산물물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 30일간 2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일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무안군,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희망업소 모집

무안군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손 씻는 시설 및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을 한다.

이번 사업은 높아진 개인위생 관심에 부응하고 식중독 예방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일반음식점 출입구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고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외국인, 관광객, 이동약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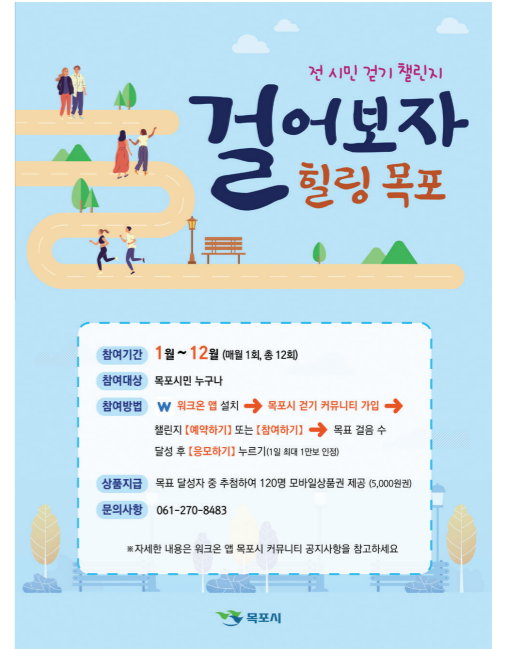
손 씻는 시설 설치 지원은 우리 군에 있는 주요 관광지, 남도음식거리, 공항, 다중이용시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등 음식점

화개선사업 참여업소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은 기존 좌식테이블 수 이내로 모든 일반음식점에 적용된다.

신청 희망업소는 2월 28일까지 (사)한국의식업중앙회 무안군지부(☎061-452-8809) 또는 무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1팀(☎061-450-5018)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세면시설, 상하수도관 등 손 씻는 시설 설치비 또는 입식테이블 설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암군, 매일시장 먹거리 특화상점가 입주자 모집

영암군은 군에 특화된 먹거리 조성을 위해 영암읍 매일시장 내 4개 상가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비 등 12억원을 들여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이 사업은 영암의 대표적인 농·축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특화상점가는 총 5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개동은 공유부역 및 커뮤니티 회의실로 이용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영암에서 창업을 원하거나, 최종 입주자 선정 전까지 영암에 주소이전이 완료 예정인 예비 창업자로, 연간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다르나 1년에 150만원에서 250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군은 먹거리 특화상점가 특성상 영암의 대표적인 특산품을 이용한 음식 등 사업계획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기존 음식점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5월경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발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입주토록 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8일까지로, 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누리집(https://www.yeongam.go.kr/)의 공고된 내용을 확인 후 관련 서류를 갖춰 우편, 온라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영암=조대호기자

'걸어보자, 힐링 목포' 전 시민 걷기 챌린지 운영

목포시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 향상을 위해 1월부터 12월까지 워크온 앱을 활용한 '전 시민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워크온은 걷기 활성화 모바일 앱으로 목포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챌린지 참여는 워크온 앱 설치 ▲목포시 공식 커뮤니티 가입 ▲챌린지 화면에서 '예약하기' 또는 '참여하기'를 선택한 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걸으면 된다.

시는 매일 걷기 챌린지를 운영할 계획이며, 1월 1차 챌린지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8만보 달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목표를 달성한 시민 12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5천원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